



나와 성적 능력

전설적인 희극배우 찰리 채플린은 54세의 나이에 17세의 오나 오닐과 네 번째로 결혼했다. 그 소녀는 유명한 극작가 유진 오닐의 딸로, 당시 채플린의 아들과 서로 좋아하던 사이였다. 이 소녀와 결혼한 후 채플린은 "오나 같은 여자를 미리 알았더라면 그렇게 많은 여자와 관계를 가질 필요가 없었을 텐데" 하면서 스위스에서 독가적인 생활을 즐겼다. 이미 다른 여자들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일곱이나 있었던 그는 70세가 넘어서 여덟 번째 자식을 낳았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다. 나이 50이 넘으면 남성호르몬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고 성적 활력도 줄어든다. 65세가 되면 수면중 발기력과 피부감각까지 현저히 떨어진다. 이른바 정년퇴직하는 나이인 것이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성적으로도 정년퇴직하는 것은 아니다.

노화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왕성한 성생활을 하고 싶어한다. 오늘날 수백만명이 이 문제로 딜레마에 빠져 있다.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발기력이 떨어지고, 전립선 질환이나 방광 질환으로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수술을 받고 발기부전이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은 60대까지는 발기를 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70-80대 남성들이라도 계속 직업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왕성한 성생활을 기대하는 여성들과 재혼을 한 사람도 많다. 새로운 로맨스가 시작되면 남성들은 자신의 성적 능력에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되며 여성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 훌륭한 솜씨를 갖고 싶어한다.

이럴 경우, 음경에 칼을 대야 하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음경보형물 삽입수술 같은 치료를 받을 수도 있지만 가느다란 주사 하나로 안전하고 확실하게 발기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주사치료라는 현대의학적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나이가 들면 발기력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바뀌어감에 따라 사람들은 음경주사 같은 더 안전하고 확실한 발기부전 치료법을 요구하게 되었다.

성이라는 것을 젊은 사람만이 가지는 전유물이자 특권으로 생각하여 나이 든 사람은 성적으로도 끝났다고 보는 것은

착각이고 편견이다. 성생활이 가져다주는 친밀감, 흥분, 기쁨은 나이가 들어도 줄어들지 않는다.

연구 결과 발기력의 저하보다도 실질적으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행위에 대한 걱정이다. 여자 파트너가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 혹은 자신의 분비물이 적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다.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이 되면 여성호르몬의 감소로 인해 질의 분비물만 줄어들 뿐 음핵이나 다른 성감대의 자극 반응은 변하지 않는다.

여성호르몬의 양은 줄어들지만 남성호르몬의 양은 오히려 증가한다. 이 남성호르몬은 나이 든 여성들의 성적 욕구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원인이다. 이런 현상은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다.

♠ 성에너지

프로이드의 수제자인 빌헬름 라이히는 온갖 방향으로 급진적인 사상을 전개했다. 그는 정신과 전문의들의 전통적 필독서인 [성격분석]을 썼고, 그만큼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는 정신분열증으로부터 은하수에 이르는 모든 양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오르곤 에너지'를 제창하여 심리학자들과 히피들에게 우상적인 인물이 되기도 했다.

사실 오늘날 정신과학의 많은 부분은 라이히의 이론을 발전시킨 것들이다. 이 성격이론과 성격분석의 기술로 라이히는 1920년대 후반, 정신분석 운동에 있어서 일약 선도적 위치에 올라서게 되었지만 동시에 그를 비판하는 사람도 많았다. 1928년에 라이히가 비엔나에 성치료상담소를 세우자 수천명의 남녀들이 그의 강의를 듣거나 성적인 일에 관해 조언을 얻으려고 몰려들었다고 한다.

프로이드가 '성적 갈등이 노이로제를 일으키게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제자인 라이히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노이로제는 생식성의 장애로 인해서, 좀더 정확히 표현하면 만족스런 오르가슴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발병한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노이로제를 치료하려면 억압된 생식성을 재생시키면 되는

것이였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무의식적이고 동물적인 심층을 의혹스럽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다. 그는 이드를 '끓어오르는 중동들로 가득 찬 솥'으로, 무의식을 '무시무시한 요괴들과 살인적인 욕망들이 득실거리는 것'으로 묘사하였다.

그러나 라이히는 성욕과 공격심으로 가득 찬 추악한 무의식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본질적으로 건강한 근본적 실재의 왜곡으로 파악하였다.

라이히는 성격을 프로이트식의 세 가지 모델로 설명하였다. 인간 내부의 가장 심층적인 곳에는 '자연적인 사회성과 성욕, 노동을 자발적으로 즐기는 성향,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등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 모든 본능들은 성을 부정시키는 사회와 문화 속에서 억압될 때, 두 번째 층으로 전이되어 새디즘, 탐욕성, 호색성, 질투 등을 비롯한 각종 도착(倒錯)들이 지배하는 '프로이트적 무의식'으로 나타난다.

이 두 번째 층은 다시 성격학적 상부구조에 의하여, 즉 '자제, 위선적인 사회성 등에 의하여 가면처럼 덧씌워져 은폐되고 보존된다. 1934년 이후의 라이히의 이론은 영동해지기 시작했고, 그 이후 쓰여진 책은 정신과학에서 금서 판정을 받는다. 1934년부터 1937년까지 그는 성기관들이 흥분 상태에서 그들의 생전기적 충전의 증가를 보여주는가를 측정하기 위해 기묘한 실험들을 행하였다.

1939년 그는 생명과 성욕에 고유한 종류의 에너지를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오르곤(orgone) 에너지'라고 이름지었다. 나머지 생애 동안 라이히는 오르곤 에너지의 특성들을 조사하고 치유력을 이용하는 일을 연구하는 데 매달렸다. 말년에 점차 편집광적으로 변해버린 라이히는 오르곤 에너지를 가시적이고 측정할 수 있으며 오르곤 에너지 저장소에 넣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히스테리에서 암에 이르는 질병까지 모든 정신적, 신체적 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신문 매체 및 과학자들에게 맹렬한 공격을 받기 시작했다. 박해와 비판 속에서 라이히는 점점 더 편집광적으로 되어서 자신을 소크라테스로부터 마르크스에 이르는 순교자들, 특히 예수와 동일시하기까지 했다.

1954년 미국 연방 식량 및 의약품 관리국은 라이히가 기만적인 치료기구인 오르곤 에너지 집적기를 사용한다고 주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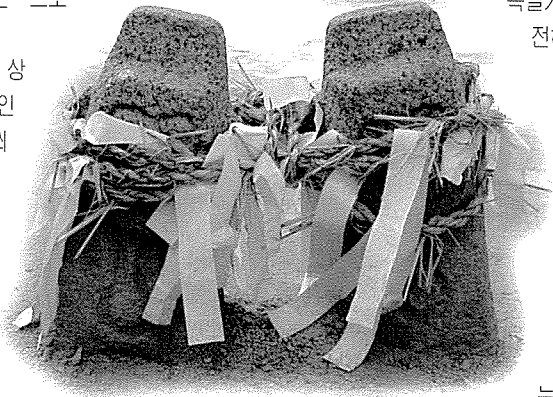
원에 제소하였다. 라이히는 출두하지 않았고, 결국 1956년 재판에 회부되어 2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복역 중, 1957년 11월 연방 형무소에서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였다.

라이히는 전쟁이나 여러 문제를 모두 섹스 에너지 문제로 귀착시켰다. 제1차 세계대전이 독일 황제 카이저와 귀족계급의 불만족스러운 성생활로 인해 일어났다고 하는 주장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을 뿐더러 때로는 뒤통수를 한 대 치는 것 같은 예리함이 보이는 그의 이론은 성의학이 상당히 발달해서 거의 모든 성기능장애를 그리 어렵지 않게 치료할 수 있는 현재까지도 상당히 유용하다. 기본적인 심리적 이론들은 이미 1920년대에 거의 다 알려져 있었다는 것이다.

원래 정신분열증이나 정동장애 같은 정신병적 상태에 빠지면 억압이 풀려서 온갖 종류의 요괴가 득실거리는 '이드'가 튀어나오고 암전하던 아가씨가 온갖 성적인 애기를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하게 되는 법이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인간의 본능적인 것을 알게 되는데 정신과 의사라는 직업이 그렇게 단순하게 느끼도록 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다.

그러다가 정신분석을 계속 공부하게 되고, 작년 재작년에는 낮동안 뉴욕 맨해튼의 비노기과에 가서 하루 몇십 명씩 온갖 인종의 발기된 음경을 보다가 저녁이면 차를 몰고 개인적 분석을 받았다. 지금은 작고 하셨지만 성의학자로 세계적 명성을 떨치던 필자의 스승이었던 헬렌 카플란도 우선은 정신분석의였기 때문이다.

꿈 분석을 매일 하게 되고, 점단과학을 하는 비노기과의 발기부전 클리닉과 어떤 면에서는 원시적인 방법을 쓰는 정신분석학적 면담 사이에 상당히 분열을 느꼈었다. 인간 무의식에서 공격심과 더불어 두 축을 이루는 성 에너지에 관한 얘기는 무의식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허무맹랑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쉬운 예를 들면 이렇다. 영화를 볼 때, 섹스와 무의식의 주요 부분을 이루는 공격심, 즉 폭력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영화를 보느냐는 것이다. [Z]



〈편집자 주 : 이 원고는 설현욱 박사의 인터넷 사이트(<http://sex-academy.com>)에 게재된 원고를 필자의 동의하에 실게 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02-512-1101)〉